

●●● 장원철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대표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장원철 대표

축산업계와 함께 했던 지난 39년

동사의 모태인 서울사료는 한국축산의 태동기인 1969년에 설립되어 '축산농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라는 창립이념 아래 축산업계의 동반자로서 인연을 맺었다. 특히, 현재 양계분야에서는 산란계 1위, 육계 8위를 점유할 정도로 양계인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아온 기업이다.

1970년대 연평균 21,100톤을 생산·판매한 이래 80년대에 160,000톤, 그리고 '90년대에 450,000톤을 생산·판매해 왔으며, 지난 2002년에는 연간 512,000톤의 사료를 생산, 양축가에 공급해 왔다. 특히 이번 희망사료와의 통합으로 인천, 천안, 김제, 경산, 경주공장을 중심으로 5개 지역에 하치장을 두어 적극적인 생산판매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서비스 체제를 통한 FTA이후 한국축산의 희망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품공급에서도 단순히 판매 수처에 의한 외형적인 순위 경쟁보다 '누가 한국축산을 진정으로 위하느냐'에 역점을 두고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데 앞서 농가에게 얼마나 실익이 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진정한 축산사업의 동반자로 함께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진정한 한국축산의 희망, 파랑새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의 로고마크는 '파'

서울사료는 '07년 4월 1일 영남지역의 희망사료와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대천한화콘도에서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인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출정식 행사를 가졌다. 장원철 대표이사는 이날 출정식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명 선포와 동시에 한국축산 사료가 지향해 나갈 사업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출정식

랑새 이다. 파랑새하면 알 수 있듯이 희망의 매개체를 떠올리며 전체적인 조직감을 강조했으며 이상속의 유토피아를 찾고자 하는 기업정신을 담았다. 이상속의 새를 통해 우리 축산인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매개체이자 한국축산의 미래에 희망을 전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장원철 대표는 11자나 되는 회사명에 대한 참 뜻을 알아주길 바랐다. 기존 서울사료의 이미지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국내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기업으로서 '진정한 한국축산의 희망'이 되겠다는 각오로 순우리말에 뜻을 담았다. 또한 편의를 위해서는 줄임말을 쓸 때는 '한국축산' 사료라고 간편하게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FTA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

수입 축산물의 국내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국내 축산물 시장의 붕괴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배합사료 역시 수요 감축으로 인해 사료업계에도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장원철 대표는 현재 시장상황을 한국축산업의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표현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 또한 국제 경쟁력을 대비해 축산 농가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며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 상위 5%내의 생산성 달성에 방향을 두어 끊임없는 도전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향

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인식부터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료 원재료 가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도 축산업계의 동반자로서 제조 원가와 생산비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사양관리뿐만 아니라 환경, 질병, 경영 등 축산전반에 걸친 종합솔루션 제공에 앞장서며 축산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실 · 열정 · 조화

장원철 대표는 '한국축산' 사료의 사업방향에서도 보편화된 기존사업방식을 넘어 자신만의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추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료를 얼마나 파는가 보다는 영업 초점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맞춰서 단순히 사료 판매량을 증가시키는데 급급해 하지 말고 농가의 생산성과 농가실정을 파악하여 고객의 성공과 수익을 위해서 정열을 바치자고 전했다.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는 열정 · 진실 · 조화라는 파랑새의 가치관 제시했다. 농가를 위한 열정으로 진심함을 담아 조화를 이루는 기업으로서 올해는 기본확립의 해, 2008년에는 파랑새 실증의 해, 2009년에서 파랑새의 우월성을 이룩하는 해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국 축산업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정리 | 기영훈 기자)